



사이의 행복

현대청운고 2-2 이주형

색바랜 앨범 사이사이에 묻혀있는
그간 잊혀졌던 나의 순간들.
그 짧은 찰나 속에 깃들어 있는 저마다의 사연들은
자그마한 필름 속에 영원히 간직되겠지...

저마다 들려주는 사연 속에서
문득 나의 눈을 사로잡은 한 장의 사진.
이야기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,
진심 어린 웃음 속에 깃들어 있는 진정한 행복

이제 와 깨달았다. 그 작은 것이 담아내고자 한 것은
특별한 순간 속에서, 심지어 사소한 순간 속에서도
잊혀져 가는 그 짧은 찰나의 기쁨이었다는 것을.

그렇게 나는 언제나 큰 미소를 지어본다.
언젠간 기억되지 못할 순간순간의 행복들이
영원히 간직되기를 바라며...

